

2015.10. 4.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1. 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마태복음 14장 1-12 절

오늘은 세속의 권력과 교회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선교로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마가 6:12-13)

선교의 하나의 성과로,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 14:1)

위정자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의 선교는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헤롯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무심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2절)

즉, 헤롯은 죽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무서운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요한을 헤롯 자신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처형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헤롯에게 한없는 공포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헤롯은 왜 요한을 처형했을까요?

그 내용은 3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3절)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이고,

갈릴리와 베뢰아의 분봉왕으로, 헤롯대왕의 영토의 일부를 계승했기에 「왕」은 아닙니다.

그는, 로마에서 이복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한테 반해,

본부인과 이혼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레위기 20:21)

형제가 살아있는 중에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롯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4절)

「불법」은 「옳지 않은 것, 해서는 안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위정자의 죄악을 정면으로 「불법」이라고 단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교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검 둘」 (누가 22:38)에서 하나는 국가를 대표하는 「세속의 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영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로마 교회는, 이 두개의 검이 교회의 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견해입니다.

한편, 재세레파는, 국가를 악마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와 관계하는 것만으로도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대해서,

루터는,

기본적으로는 재세레파와 같이 국가와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부정하면서,

그래도 위정자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 영적인 것에 간섭을 하는 경우에는 저항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정자가 법에 어긋나는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저항하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자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지배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도 아닌,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질서로서, 서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도록 명령하는

「십계명」을 실현하는 것이 위정자의 책임이기도 하며,

이에 반할 경우에는 교회가 위정자에게 경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정자가 국민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경우,

위정자가 불법한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이외에도 위정자가 심계명을 어겼을 때,
위정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경고할 책임과 의무가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위정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단죄하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는, 국가가 어쨌든 악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관여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질서이고,
위정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직무라고 이해해,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책략으로 참수형을 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못 본척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요한의 죽음은 어리석은 개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목숨을 걸고 위정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국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말씀을 어기면 멸망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훈이었습니다.
나라는 불의에 의해서 멸망하고, 정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타협없이 위정자에게 말했습니다.
못 본 척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침묵하면, 자신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 (에스겔 3:18)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식 직무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식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에,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엘리야나 요한처럼 걸으로 보기에 광야의 거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더라도 나라의 정치와 장래에 대해서 왕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요한과 같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에게는,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것이라」 라는 의무가 부과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7:18-20)
그리고, 평소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직무자로서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레위기 10:10,11)

하지만, 이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어떤 때는 어떤 집안의 출신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어, 이스라엘의 정치제도를 완전히 뒤엎어, 하나님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위정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살해를 당할뻔하기도 하고, 실제로 살해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책무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그리스도교계에서도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지배하려고 했던 중세 로마교회서부터, 은둔형인 재세레파,
거기다 소극적인 개혁자 루터, 그리고 적극적인 칼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형태로부터보면,
요한은, 위정자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무시하는 은둔형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기에 저항한 것도 아닌, 위정자의 악을 단죄하는, 적극적인 예언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만드는 것은 죄많은 인간들입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심계명을 어기는 불의가 사람도 국가도 멸망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목이 잘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예측, 방임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검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이 잘리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예언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이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는 예언자로서의 책임입니다.
그 모범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요한입니다.

패전 후 70년을 맞이하는 일본교회에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황이 있는 곳이나 신사에 가서 호국필승을 기원하고,
주일예배와 신년예배에서 호국필승과 무운장구를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까 기도하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거짓 예언에,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침략전쟁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패전 후에는, 전쟁 중에 너무 국가정책추진에 관여한 역반동인지,
아니면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도 있어서 인지, 일부의 사회파이외의 교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정교분리는 어디까지나 위정자가 국민(교회)에게 종교를 강요할수 없다고하는 원칙으로,
교회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위정자를 비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예언자로서의 책임을 다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가 십계명을 실현하는 정치를 하도록,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위정자가 그렇게 통치하도록, 평화로운 모든 수단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16, 17세기와는 다릅니다.
우리들 국민이 왕권자입니다.
선거, 출판, 소송, 진정(청원, 로비활동), 데모참가 등으로 가능합니다.

끝으로,
요한의 말로, 위정자 또는 국가가 변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헤롯이 갑자기 회심해서 착한 사람이 됐다던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다면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한은 헤롯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원래 헤롯은 요한의 이야기를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기쁘게 잘 들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
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마가복음 6:20)

이렇게 헤롯은 간음해서는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을 무시했다하더라도, 이번에는 예수님의 선교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예언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진 예언자가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시고 다시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의 선교는, 이스라엘과 주변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위정자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여도,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실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전 인류의 악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